

“일본 위기 핑계 노동법 개악 시도 시, 총파업 돌입”

노조 울산·현대차·현대중지부, 총파업대회 열어 ... 모비스비정규직지회 파업, 현대차 울산공장 멈춰

“노동법 개악 박살내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법인분할 구조조정 막아내고, 민주노조 시수하자.”

“금속노조 한다면 한다. 2019 임단투 승리하자.”

금속노조는 8월 21일 2019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2차 총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91개 사업장 4만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을 벌이고 지역별 결의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지역 지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한 2차 총파업에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 한국지엠지부 등이 함께했다. 1차 총파업은 7월 18일 전개했다.

8월 21일 오후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 울산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하나들 모여들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지부가 ‘현중 노동탄압 분쇄,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울산 총파업대회’ 를 열었다. 앞서 노조 울산지부는 2차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전체 조합원 3시간 파업을 감행한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울산 총파업대회에 참석했다.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사측이 노조탄압도 모자라 노동자 생존권까지 말살하고 있다” 라고 규탄했다.

박근태 현중지부장은 “현중지부는 중정계 24명, 해고 4명이라는 사측의 공격에 흔들림 없이 오늘 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라고 보고했다. 최근 현대중공업 사측은 “법인분할 반대 무효화 투쟁” 을 이유로 지부 조합원 1,438명을 징

계했다. 박근태 지부장은 “조선소 안의 비정규직 등 지부 조합원 범위를 늘려 현대중공업 모든 노동자가 함께 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라며 “더 많은 하청, 사무일반직 노동자를 조직해 하반기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 라고 결의했다.

노조 하부영 현대자동차지부장은 “2019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총파업에 복무하고, 빚속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금속노조 동지들이 자랑스럽다” 며 투쟁사를 시작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현대자동차는 8월 27일까지 집종교섭을 벌일 것” 이라며 “28일까지 타결하지 못하면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 추석을 넘길 수도 있다” 라고 보고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경제침략을 핑계 삼아 노동기본권 후퇴를 노리고 있다” 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의 노동법 개악시도를 비판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국회가 노동법 개악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현대자동차는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언제든 총파업 투쟁으로 전환할 것” 이라고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의지를 밝혔다.

노조 울산지부는 울산 총파업대회 사전대회로 ‘2019 금속 울산 2차 총파업 결의대회’ 를 열었다. 강수열 노조 울산지부장은 “지부는 오늘 임단협 투쟁 승리와 노동기본권 확대, 재벌개혁, 원하청 공정거래 쟁취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전개했다” 라며 지부 조합원들에게 보고했다.

강수열 울산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을 약속했지만 자본기들만 감싸고 있다” 라고 한탄했다. 강수열 지부장은 “재벌개혁 없이 노동존중은 물론이고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은 불가능하다” 라고 재벌개혁 투쟁을 강조했다.

강수열 지부장은 “재벌 적폐를 해소해야 비정규직을 철폐할 수 있고, 원하청 불공정거래가 사라진다” 라며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속노조가 재벌개혁 투쟁에 앞장서자” 라고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이날 총파업대회 사회자가 지난해 9월 금속노조에 가입한 뒤 처음으로 총파업에 참여한 노조 울산지부 현대모비스비정규직지회가 소개하자 큰 박수가 쏟아졌다. 박유중 지회장은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치며 4시간 파업을 벌였다” 라며 “우리가 지회가 전체 라인을 세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라인이 멈췄다” 라고 파업 상황을 보고했다.

박유중 지회장은 “요즘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금속노조가 젊어졌다” 라며 “젊은 금속노조의 힘으로 올해 임단협 투쟁에서 꼭 이기자”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두려움을 모르는 노동자로 다시 태어났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총파업대회 열어 ... “일진다이아몬드지회, 노조파괴 역사 마침표 찍는다”

금속노조는 8월 21일 2019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2차 총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91개 사업장 4만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을 벌이고 지역별 결의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지역지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한 2차 총파업에 한국지엠지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 등이 함께했다. 1차 총파업은 7월 18일 전개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서울 마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57일째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싸운다고 결의했다. 특히 현대모비스 충주지회는 이날 6시간 파업을 벌이고 많은 조합원이 상경 투쟁에 참가했다.

노조 대전충북지부는 8월 21일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일진 자본 규탄, 2019 임·단투 승리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부 조합원들의 분노는 임금동결과 상여금 쪼개기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회피, 유해·화학물질 노출 방지 등도 모자라 노조 파괴를 시도하는 일진그룹을 향했다.

정주교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일진그룹을 향해 “허수아비 교섭 대표를 세우지 말고 실제 대표가 나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라”라고 촉구했다. 정주교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노조 대전충북지부만 왔지만, 다음 결의대회 수도, 충청권지부 조합원들이 오고, 그 다음 대회에 금속노조 전체 지부 조합원들이 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홍재준 일진다이아몬드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전면 파업 두 달이 되어 가지만 파업 대오를 이탈한 조합원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보고했다. 홍재준 지회장은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은 단결과 연대로 승리를 일궈내는 투쟁 속에서 불합리를 제거하는 투쟁이 두렵지 않은 노동자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홍재준 지회장은 “사측은 이제 금속노조를 와해하려는 생각을 접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일진그룹은 충북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투쟁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연대사에서 “정권과 자본은 민주노총과 투쟁하는 노동자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한다. 오히려 법이 보장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조를 찍어 누르는 일진 자본이 폭력 세력이고, 9년째 노조 파괴에 골몰하는 유성 자본이 폭력 집단이다”라고 질타했다.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 선지현 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지회의 투쟁을 격려했다. 선지현 대표는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이 투쟁하지 않았

면 10년을 일해도 최저 임금밖에 주지 않은 회사가 변화와 혁신의 기업으로 역사에 남았을 것이다.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으로 자본의 노조 파괴가 세상에 알려졌듯이 일진다이아몬드지회의 투쟁은 노조 파괴의 문을 닫는 투쟁이 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구 지회 조합원은 현장 발언을 통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민구 조합원은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오래 일하면 월급을 올려주는데 매출 1천억 원인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임금을 동결했다. 생산 현장에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할 집진·환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차라리 미세먼지 마시는 게 더 상쾌하다고 말할 정도다”라고 꼬집었다.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이 대회를 마무리하는 투쟁사에서 단결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정태 지부장은 “일진 자본은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꺾지 못 할 것이다. 단결과 연대의 힘을 모아 현장으로 돌아가 2019년 임단투를 승리로 만들자”라고 결의했다.

총파업대회 중간에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이 민중가요 철의 노동자와 처음처럼에 맞춰 집단울동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은 일진그룹 본사 앞에 노조파괴 중단과 임단협 승리를 염원하는 소원지를 묶는 상징의식을 벌인 뒤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노조파괴, 십 년째 당하고 싶지 않다”

유성기업지회, ‘노조파괴 끝장’ 상경투쟁 중 ... “조건 없이 성실교섭 의사 보이면 언제든 만날 것”

“노조파괴 9년, 유시영이 해결하라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처벌하라” 서울 강남구 삼성로 거리에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8월 20일 오후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와 영동지회가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유시영 규탄 결의대회’ 를 열었다.



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9월 4일 예정인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배임·횡령 혐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유시영·현대차 엄중 처벌과 노조파괴 중단, 임단협 쟁취를 위해 8월 19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 오케투지를 시작으로 23일까지 ‘노조파괴 끝장’ 상경 투쟁을 전개한다.

지회는 19일 현대차그룹 규탄 결의대회, 20일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 결의대회, 21일 천안지원 앞 충남지부 총파업대회, 22일 광화문 오케투지·청와대 규탄 결의대회, 23일 청와대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지회는 매일 노숙을 하며, 문화제를 개최한다.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20일 유시

영 규탄 결의대회에서 “지회가 계속 교섭을 요구했으나 매번 일찍한 수작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회사 탓에 어제 서울에 올라왔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정훈 지회장은 “금속노조가 유성기업 사측과 만남을 피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지회는 회사가 조건 없이 성실히 교섭에 임할 의사를 보인다면 언제든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경투쟁에 참석한 지회 조합원들이 마이크를 잡고 지난 9년 동안 현장에서 쌓인 울분을 토해냈다. 유성 영동지회 고성수 조합원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인 듯했지만, 함께 투쟁하면서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는 우

리 조합원들이 자랑스럽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고성수 조합원은 “2011년 직장폐쇄 때 초등학교 4학년이던 딸이 곧 스무 살이 된다”라며 “10년째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다. 노조파괴 없는 새로운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당당히 일하는 현장을 반드시 만들자”라고 호소했다.

유성 아산지회 김승기 조합원은 “교섭하지는데 사무소 셔터까지 내렸다. 회사가 정말 너무한다”라며 “사측은 사무소 외벽에서 유성기업 간판과 로고를 다 떼어 냈다. 유시영 회장이 제 발 저리다는 증거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시영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노조탄압을 의뢰하며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유시영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9월 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조선소 노동자 공동 총파업, 구조조정 막는다

조선노연. 28일 대규모 파업 상경 투쟁 ... “조선산업 정몽준 재벌 몰아주기, 조선산업 죽인다”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8월 28일 조선산업 구조조정 저지와 2019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공동 총파업을 벌인다. 이날 조선소 노동자들은 일손을 놓고 대규모 상경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 노조연대(조선노연)는 8월 19일 청와대 앞에서 ‘구조조정 저지-2019 임단투 승리, 총파업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을 열었다.

조선노연은 “노동자들은 기본급 동결

과 반납, 복지 축소, 무급 휴직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선산업을 지켜왔다. 그러나 업황이 개선해도 정부와 재벌은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조선노연은 “문제인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으로 조선산업을 박원체제로 개편해 정몽준 재벌 총수 일가에 특혜를 주고, 무리한 병합으로 발생할 조선산업 위기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구

구조정으로 넘어가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선노연은 “이러한 문제인 정부의 조선업 재편 시도는 조선산업을 살리지 못하고 죽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와 조선노연은 “그동안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와 진지한 대화를 통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했다. 총파업 공동투쟁을 통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